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과 지역주민 태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Developmental Influential Recognition and Resident's
Attitude

최 병 길* · 송 제 호** · 김 시 영***
(Choi, Byoung-Kil · Song, Jae-ho · Kim, Shi-Young)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실증분석
- IV. 분석 및 결과에 대한 논의
- V. 결론

I. 서 론

지역관광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영향인식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1960년대의 관광연구는 관광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교수

*** 일심수산 대표

하는 연구가 많았고, 1970년대에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가 많았으나 1980년대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인식을 모두 고려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Jafari, 1986; Jurowski, 1997).

이와 관련하여 지역관광개발과 관련된 주요 행위자, 즉 지역주민이나 관광사업자, 지역정책수립 및 집행자 등의 태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지역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는 방법의 하나로 지역주민의 태도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지역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태도와 영향인식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과 같은 태도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Chamihael, 2000).

본 연구는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영향인식과 지역주민의 태도에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세계 속의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는 제주도 성산지역의 주민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영향인식과 태도간의 상관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관광개발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영향인식과 지역주민의 태도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여 분석의 준거로 삼았으며, 실증연구의 경우 연구지역인 성산읍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연구지역인 성산읍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한정하여 2003년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예비답사 및 예비조사는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3년 3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성산읍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개인면접조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2.1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의 개념과 분류

2.1.1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의 개념

관광개발이 지역주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인식 요인으로는 대체로 관광개발로부터 얻어지는 개인적 혜택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인구 및 사회통계적 특성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어 나이, 성별, 교육수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교적 관련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과 지역주민의 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Perdue, Long 그리고 Allen의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다 (Perdue, Long & Allen, 1990).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는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의 긍정적 태도와는 정적으로 관련이 있고, 반면 부정적 태도와는 부정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관광개발의 제한에 대한 지지는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의 긍정적 태도 및 추가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와 부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관광개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데, 이러한 태도는 지역사회의 관광개발 수준 및 전체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관광개발 수준이 낮은 농촌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높은 주민들보다 낮은 주민들이 관광개발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지만, 관광개발 수준이 높은 농촌지역에서는 오히려 경제활동이 높은 지역주민들이 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태도는 지역내의 관광개발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과 향후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는 인구 통계학적 속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나이와 성별, 교육수준, 고향여부, 거주지역, 직업이며, 또한 관광객 접촉 수준과 접촉유형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태도의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지역관광사업의 중요성 및 관광개발의 수준, 의사결정에의 주민참여, 지역사회의 성장물에 대한 수준에 따라 지역주민 태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지역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이 원인이 되어 형성된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근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그룹은 크게 4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민창기, 1992).

첫째는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이며 관광객이 받는 영향은 관광지출로 인한 소비의 증대와 관광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보상을 얻게 된다.

둘째는 관광기업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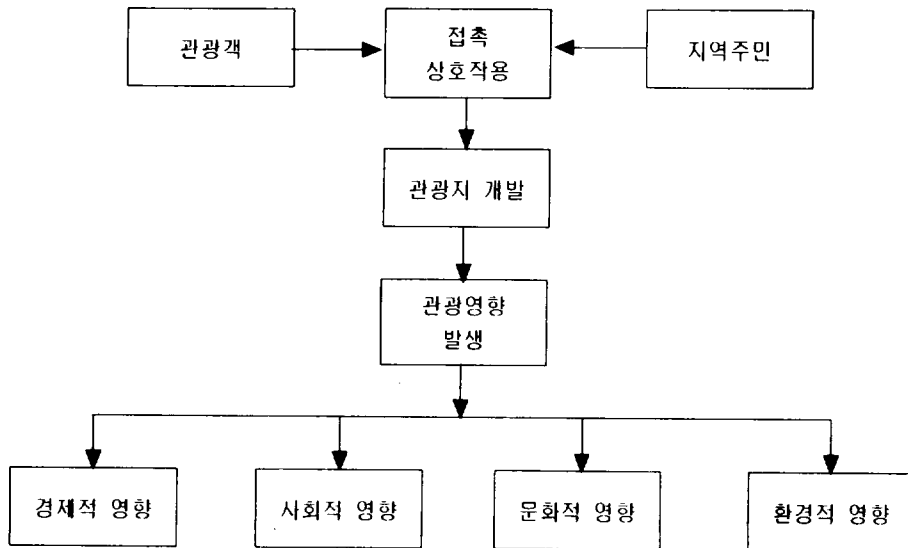
셋째는 지역관광을 통해 여러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지방정부로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관광지역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으로 지역주민은 관광기업이나 지방정부의 관심을 뛰어넘는 보다 직접적이고 복합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본거지가 관광지화 됨으로서 그들이 받게 되는 영향이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 미치기 때문이며, 그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가 관광의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광객과 지역개발간의 균형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 관광객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러한 관광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경제적 성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광지는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지역관광개발의 영향을 구분하는 방식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관광개발의 영향인식을 세 범주 즉,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물리적 영향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이를 경제적 영향, 환경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정치적 영향으로 나누기도 한다. 또 사회적 영향과 경제적 영향을 결합하여 사회·경제적 영향이라 하기도 하여 영향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으로 구분한다.

<그림 1>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의 개념



자료 : 이강재, "관광개발의 영향이 지역주민 태도에 미치는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p.10 재인용.

<그림 1>은 지역관광개발의 영향인식을 하나의 척도로서 나타낸 것으로 관광객이 관광목적지에 도착하여 지역주민과 상호 접촉을 하면서 그 결과 목적지에서는 지역관광개발 영향이 발생하며 그 영향은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각각 긍정적인 편익적 측면과 부정적인 비용적 측면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역관광개발 수준에 따른 태도의 변화는 매우 다양하다. 지역관광개발 수준이 낮은 상태이거나 관광객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변화에 대한 태도는 느리지만 지역관광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과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태도에 대한 변화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2.1.2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의 분류

지역관광개발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인식은 1980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지역관광개발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상반된 영향인식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개발된 관광지에서 접촉하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비용(부정적 측면)과 편익(긍정적 측면)부분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른 영향의 부분은 크게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으로 구분된다.

지역관광개발에서의 이러한 영향인식들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며 그에 대한 강도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관광개발의 영향인식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구분하고 각 영향인식을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의 긍정과 부정적 측면

영향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경제적 영향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조세수입의 증대 - 신규고용의 증대 - 경제구조의 다양화 - 지역사회의 생존가능성 증대 - 지역투자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상승/이익의 편중화 -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재산세증가 - 단순서비스 직종 위주의 고용 - 관광수입의 누출효과 발생 - 지역경제의 관광에 대한 과잉의존
사회 문화적 영향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직업구조의 다양화 -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 지역에 대한 자부심, 애향심, 정체성 증가 - 인류공동체 의식함양 - 인종적 태도, 편견 및 선입견 감소 - 상호 문화교환으로 인한 이해증진 - 지역전통문화 보존/ 문화활동의 다양성 - 언어교육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 - 지역문화의 변질/미풍양속의 저해 - 도박, 범죄, 매춘의 증가 - 가족구조의 와해 - 신식민지화 형성/ 향락문화 지향 - 외래인 혐오감 증가 - 지역문화의 상품화/ 정체성 상실 - 외래어 혼용으로 인한 토착어 쇠퇴

영향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환경적 영향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의 재정비 및 확충 - 관광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의 이용 기회 증가 - 문화자원 및 관광자원의 재정비 및 보전 - 자연경관의 가치 제고 - 토지 및 자원관리의 효율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의 훼손/ 생태계의 파괴 - 시설의 과부하로 인한 혼잡 - 쓰레기로 인한 수질 오염 - 거리의 혼잡 및 교통체증 발생 - 자연미관의 가치 상실

자료: 우상미,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우송대학교
동상관광경영대학원, 2002, pp.15-24. 재정리.

2.2 지역주민 태도의 개념과 구성요소

2.2.1 태도의 개념과 특성

태도에 관한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사회과학자들과 소비자행동 연구자들은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를 수용하고 있다(여호근 1999).

첫째는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부정적 혹은 호의적·비호의적, 찬성·반대로 느끼는 것을 뜻하며, 태도를 느낌이나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간주하는 견해이다.

둘째는 특정 대상물 혹은 집단간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선유경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태도를 일관성 있게 호의적·비호의적으로 대상들을 평가하려는 소비자의 경향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정의는 대상에 대하여 반응할 준비상태를 포함하기 때문에 첫 번째의 정의보다 포괄적이다.

셋째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개인 환경의 한 측면에 대한 동기, 감정적, 인지적 과정의 지속적인 조직으로 정의하며, 태도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인식적, 감정적, 행동적인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견해이다.

넷째는 개인이 그 대상의 각 측면에 대해 지니고 있는 제반신념의 강도와 신념에 부여하는 평가의 두 요소의 함수로 보는 견해이다.

태도를 이제까지의 단일 차원적 개념에 반발하여 다차원으로 보는 견해로서 여러 다속성 태도모형의 기본이 된다. 즉 한 제품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각 속성에 대하여 어떤 신념을 형성해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며 크게 보아 동일하지는 않지만, 모든 태도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일반적인 태도의 특성은 대상을 가지며 방향, 정도, 강도 및 구조를 지니며 학습된다는 점이다.

관광태도는 관광객이 관광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반응, 관광경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반응, 그리고 관광의 영향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태도의 개념 및 연

구내용에 대한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태도의 개념 및 연구내용

학 자	개념 및 연구내용
송용섭(1978)	호의적,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경향
Freedman 등(1977), 신도길(1993)	특정대상에 대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 호의적/비호의적, 찬성/반대로 느끼는 것
Crompton (1978)	일부측면에 대한 동기, 감성적, 인지적 과정의 지속적인 조직, 조직의 속성 : 인식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Eagly & Chiken (1993), 강미희(1999)	태도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태도대상과 관련한 생각이나 느낌, 태도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명확한 행동과 관련한 진술 등의 행동경향
Lindberg 등 (1997)	대상의 제 속성과 관련된 평가적 모든 관념, 이미지, 체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

자료 : 여호근, "관광태도 결정요인이 지속가능한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9, p.14.

2.2.2 태도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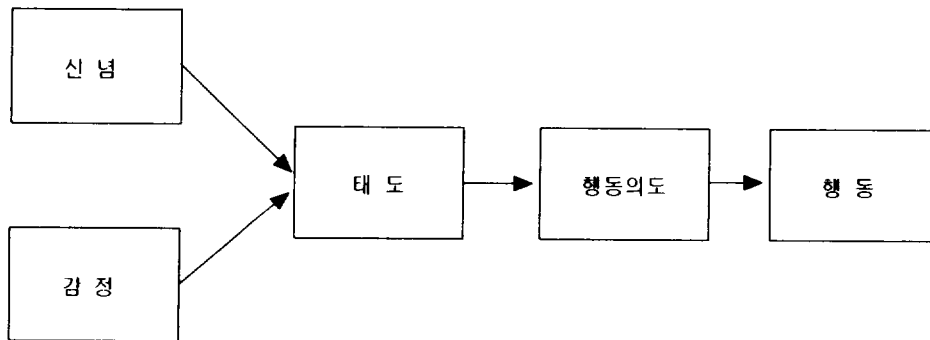
소비자 행동연구에 있어서 태도조사는 신제품개발, 기존제품의 재정립, 광고전략의 창출, 선호상표의 예측, 일반적 구매성향 파악 등의 기초가 된다. 전통적 태도모형에서는 태도를 세 요소의 구성체, 즉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및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전통적 태도모형에서는 태도를 세 요소의 구성체, 즉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및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Robertson, Zielinski and S. Ward, 1984; Richard, 1981).

인지적 요소는 사람들이 태도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을 말하며, 감정적 요소는 태도 대상과 관련한 느낌이나 반응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행동적 요소는 태도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명확한 행동과 관련된 진술 등 행동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해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태도와 행동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구조적 특성에 따라 태도는 3요소 모델(tri-component attitude model), 단일요소모델(single component attitude model), 다속성 모델(multi-attitude model)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난 수년간 관광개발의 영향인자와 지역주민의 태도 및 다양한 동기에 대하여 연구가 실시되어 오고 있는데, Godfrey(1998)는 영국의 지속 가능한 관광태도연구에서 태도는 행동의도 및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도결정요인에 따른 태도, 행동, 의도,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확장 적용하기 위하여 태도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의하면, 태도 대상과 관련한 생각이나 느낌, 또는 태도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명확한 행동 혹은 행동과 관련한 진술 등의 행동경향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신념, 감정, 태도, 행동의도, 행동간의 구조적인 관점



2.3 지역관광개발 영향과 지역주민 태도에 관한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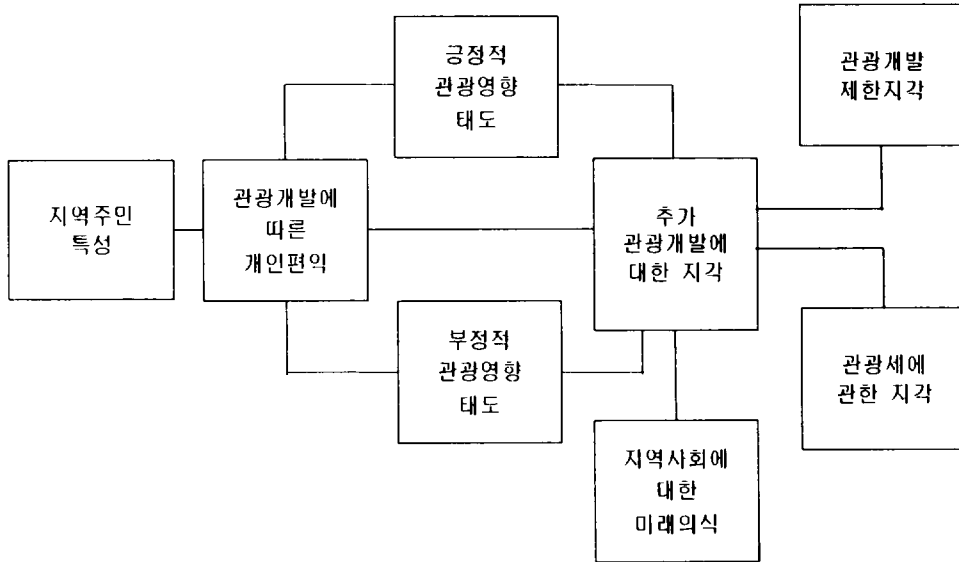
기존의 연구들은 관광의 경제적 영향인식은 일반적으로 환영하는 반면, 지역관광개발의 많은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결과들은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언급하고 있으며(Cooke, 1982; Liu & Turgut, 1986)),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지역관광개발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의 수혜 정도에 따라 지역주민 사이에도 필연적으로 갈등을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은 갈등요인이 많거나 첨예화될수록 집단행동(collective behavior)이나 집단운동(collective movement)으로 확산되어, 지역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유발할 수도 있다(김창수, 1994). 관광객과 지역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수직적 갈등(vertical conflict)으로 Doxey(1972)가 관광지의 발전단계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응을 4단계의 자극모형으로 제시한 이후, 부정적 영향인식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관광개발 전략들이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 들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으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상호행동 전략이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관광계획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관광개발이 지역주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인식 요인으로는 대체로 관광개발로부터 얻어지는 개인적 혜택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인구 및 사회통계적 특성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어 나이, 성별, 교육수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 교적 관련이 적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Perdue, Long & Allen, 1990)

<그림 3> 지역주민의 관광태도



자료 : Richard R. Perdue, Patrick T. Long and Lawrence R. Allen, "Resident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17, No.4, 1990, p.586.: 이강재 논문, p.34에서 재인용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는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의 긍정적 태도와는 정적으로 관련이 있고, 반면 부정적 태도와는 부정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관광개발의 제한에 대한 지지는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의 긍정적 태도 및 추가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와 부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지역관광개발의 결과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관광객과의 관계와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형성하고 집단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역주민 사이의 수평적 갈등은 관광객과의 관계(수직적 갈등)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관광개발이 증가할수록 지역사회의 주민 유대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과 관광개발이 낮은 수준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이 높다는 것을 <그림 3>를 통해 알 수 있다(Perdue, Long & Allen, 1990).

Ⅲ. 실증분석

3.1 분석모형 및 연구가설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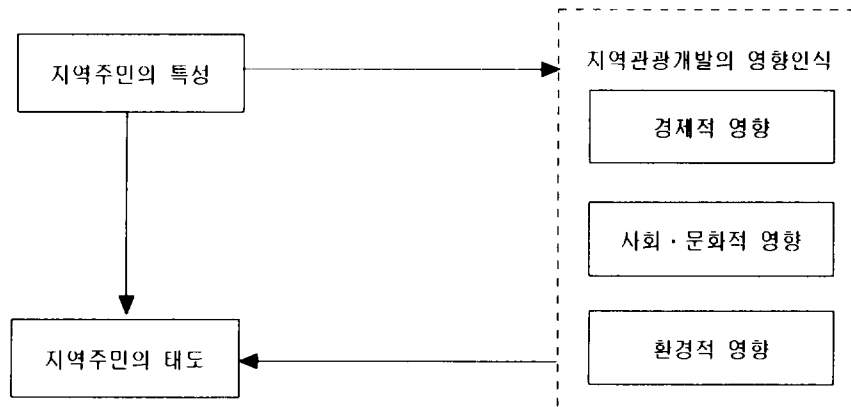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앞의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지역관광개발의 영향인식과 지역주민의 태도에 대한 상호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그림 4>와 같은 분석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라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과 지역주민의 태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 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4> 분석모형



3.2 설문지 구성과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설문지 구성은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과 지역주민의 태도, 관광개발 수용단계와 진행단계, 응답자의 특성 등 총 5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과 관련하여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인식의 긍정과 부정적 측면과 관련하여 24개 문항, 그리고 지역주

민의 태도와 관련하여 3개 문항,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소득, 고향여부 등 응답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향인식 변수들에 대한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를 양극으로 하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역관광개발의 경제적 영향인식은 관광객의 방문이 그 지역에 미치는 편익측면과 비용측면을 의미한다. 이러한 편익측면과 비용측면은 경제활성화, 고용증대, 소득증대, 생활의 윤택, 재산세 증가, 주거비 증가, 과소비 경향 등으로 분류된다.

지역관광개발의 사회·문화적 영향인식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으로 관광객의 이동으로 인한 지역의 사회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사람과 환경에 대한 모든 반응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인식은 여가기회 확대, 교류증진, 문화발굴, 문화활동 촉진, 범죄발생 증가, 풍기문란 원인, 한탕주의 성행, 풍속 파괴 등으로 측정한다.

지역관광개발의 환경적 영향인식은 물리적인 환경개선 등이 포함되는 편익적 측면과 환경오염 등의 자연 훼손적 측면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측면을 공공서비스 개선, 환경이미지 증가, 생활기반 확충, 공공시설 정비, 교통체증, 지역경관 훼손, 자연환경 파괴, 환경오염 증가 등으로 측정한다.

3.3 지역주민의 태도

지역주민의 특성은 성별, 연령, 고향여부, 본적지, 가구 월 평균소득, 토지소유 여부, 직업의 관광관련 여부, 가족직업의 관광관련 여부로 대별하여 측정한다. 변수의 측정은 명목척도를 이용하였다.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는 지역주민이 관광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반응, 관광의 영향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생각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를 관광개발 활성화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관광개발 활성화에 대한 인식, 종합적인 여건 평가로 대별하여 측정한다.

관광개발 활성화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과 '매우 긍정적'을 양극으로 하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종합적인 여건평가는 '매우 불만족'과 매우 만족'을 양극으로 하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앞으로의 관광개발 활성화에 대한 인식은 '절대 반대'와 '적극 찬성'을 양극으로 하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종합적인 평균점수를 지역주민의 태도로 하였다.

IV. 분석 및 결과의 논의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남성이 148명(65.5%), 여성이 78명(34.5%)로 구성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20명(53.1%)로 가장 많이 표집되었으며 다음은 40대가 44명(19.5%), 20대 36명(15.9%), 50대 이상 26명(11.5%)순으로 구성되었다.

고향여부에 대해 192명인 85.0%가 '성산읍 지역'이 고향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성산읍 이외의 제주도내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은 18명(8.0%), 도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은 16명(7.1%)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 평균소득별로는 100만원 이하 4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 32.7%, 101~200만원 23.9%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산읍내 토지소유여부에 대해 62.8%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의 관광관련 여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관광과 관련이 있는 응답자는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직업에서도 간접적으로 관광과 관련이 있다는 응답이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2 타당성 검증 및 요인분석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의도했던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도구가 그 속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검정을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고,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의 단순화를 위해서는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중 varimax회전을 실시하였으며 아이젠 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만을 요인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이 클수록 그 요인이 전체 요인구성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67.037%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양호한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구분	요인 적재값	공통성	아이겐 값	분산 설명력(%)
요인 1 :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인식					
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파괴		0.884	0.846	6.400	27.828
지역적 특성과 경관 훼손		0.828	0.782		
쓰레기, 소음,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 증가		0.780	0.668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 체증 증가		0.646	0.594		
요인2 : 사회문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인식					
도박 등 한탕주의 성행		0.870	0.788	2.916	12.678
알콜 중독 등 미풍양속 저해와 풍기문란의 원인		0.810	0.728		
지역의 고유한 가치관, 생활규범, 풍속 파괴		0.757	0.742		
도둑, 강도, 폭력 등 범죄의 발생 증가		0.558	0.664		
요인3 :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인식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수준		0.887	0.813	1.957	8.509
주민의 고용증대(취업)		0.822	0.795		
경제 활성화		0.754	0.731		
전반적인 생활 윤택		0.571	0.590		
요인4 : 사회문화에 대한 긍정적 영향인식					
지역 전통문화 및 유적, 유물 발굴		0.835	0.788	1.741	7.567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활동 촉진		0.719	0.752		
관광객들의 생활양식 이해, 교류 증진		0.586	0.618		
주민들의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 확대		0.519	0.553		
요인5 : 환경에 대한 긍정적 영향인식					
상하수도, 전기 등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		0.645	0.651	1.307	5.684
경찰, 소방활동 등의 공공서비스 개선		0.624	0.475		
도로확충 등 공공시설 정비		0.615	0.599		
환경 보존으로 지역의 매력이나 이미지 증가		0.602	0.513		
요인6 :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인식					
지가상승으로 재산세 증가		0.736	0.600	1.097	4.770
물가상승과 주거비 증가		0.681	0.579		
지역주민들의 과소비 경향		0.462	0.551		
Kaiser-Meyer-Olkin(KMO) 측도				0.77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제곱	자유도	2629.624	
		유의확률		253	
				0.000	

본 연구에서는 KMO값이 0.779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매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도 2,629.624로 이 값의 유의수준이 0.0001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사용에 적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이 6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4.3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분석

4.3.1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영향인식

지역관광개발에 따른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은 설문문항에 대해 강한 긍정적인 경우는 1점, 그리고 강한 긍정적인 경우는 5점으로 평가하였다. 우선 경제적 영향인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3.0885점,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인식에 대해서는 3.1770점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영향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모두 평균점수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인식 항목 중에서는 '물가상승과 주거비 증가 등 가계에 부담이 되었다'는 항목이 3.256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로 이들 항목은 관광지로서 나타난 현상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관광개발에 따른 사회·문화적 영향인식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은 2.5332점, 부정적인 측면은 2.8916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3점보다 낮게 나타나 성산읍 지역주민들은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인식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관광개발에 따른 환경적 영향인식은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적 영향인식은 3.0951점,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인식은 3.3075점으로 나타났다. 관광개발이 실제로 환경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서 성산읍 지역주민들 역시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환경적 영향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3.2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역시 부정적인 측면은 1점,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5점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평가한 과거의 태도와 현재 갖고 있는 태도 즉 과거와 현재 사이에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평가되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관광개발에 대해 과거에 갖고 있었던 태도의 평균점수는 3.903점, 그리고 현재 태도 3.089점으로 모두 평점 3점보다 높게 나타나 지역관광개발에 대해 성산읍 지역주민들은 과거나 현재 모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긍정적인 태도에서 크게 후퇴하였다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다. 과거의 태도 점수 3.9는 거의 긍정에 가까운 '4점'에 가까운 반면 최근 이들이 갖고 있는 태도의 점수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3점'에 가까운 3.09점으로 크게 낮아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

4.4 연구가설의 검증

4.4.1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른 영향인식 차이검정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라 지역관광개발의 영향인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대해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각각 살펴보았다.

(1) 경제적 영향인식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경제적 영향인식 가운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인구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성별만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젊을수록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지역에 고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타 지방사람, 그 가운데서 본적지가 성산읍지역 이외의 도내지역 사람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지역주민은 다른 계층에 비해 경제적 영향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으나 100만 원이하의 저소득층과 자신이나 가족의 직업이 관광과 관련이 없는 지역주민들은 경제적 영향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영향인식에 대한 차이검정

지역주민의 특성		긍정적 영향인식			부정적 영향인식		
		평균	F/t 값	p 값	평균	F/t 값	p 값
성 별	남 성	3.101	0.336	0.737	3.180	0.091	0.928
	여 성	3.064			3.171		
연 령	20 대	3.431	4.030	0.008**	3.333	0.959	0.413
	30 대	3.025			3.111		
	40 대	3.160			3.227		
	50 대이상	2.789			3.180		
본적지	성 산 읍	3.037	3.777	0.024*	3.177	1.957	0.144
	도내지역	3.566			3.407		
	도외지역	3.188			2.917		

지역주민의 특성		긍정적 영향인식			부정적 영향인식		
		평균	F/t 값	p 값	평균	F/t 값	p 값
가구 월 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2.842	9.305	0.001**	3.143	0.194	0.823
	101~200만원	3.333			3.210		
	201만원 이상	3.237			3.198		
토지소유 여부	소유하고 있음	3.007	-2.029	0.044*	3.160	-0.467	0.641
	소유하지 않음	3.226			3.206		
직업의 관광관련 여부	관련이 없다	2.794	9.240	0.0001**	3.128	0.229	0.795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3.142			3.195		
	관련이 있다	3.417			3.206		

* p<.05, ** p<.01

(2) 사회·문화적 영향인식

사회·문화적 영향인식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은 연령과 소득수준을 제외하고는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는 나이가 적을수록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나이가 많은 사람의 집단보다 강한 동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서는 소득수준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비교적 중산층의 집단이 부정적인 면이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다 강한 영향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문화적 영향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저소득 집단과 비교적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관심이 적은 반면 중산층의 집단은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의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없으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른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차이검정

지역주민의 특성		긍정적 영향인식			부정적 영향인식		
		평균	F/t 값	p 값	평균	F/t 값	p 값
성 별	남 성	2.541	0.196	0.845	2.841	1.219	0.224
	여 성	2.519			2.987		
연 령	20 대	2.750	4.081	0.008**	2.833	4.817	0.003**
	30 대	2.617			3.071		
	40 대	2.261			2.693		
	50 대이상	2.308			2.481		
본적지	성 산 읍	2.510	1.118	0.329	2.904	0.128	0.880
	도내지역	2.528			2.833		
	도외지역	2.813			2.813		

지역주민의 특성		긍정적 영향인식			부정적 영향인식		
		평균	F/t 값	p 값	평균	F/t 값	p 값
가구 월 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2.444			2.694		
	101~200만원	2.806	4.496	0.012*	3.102	4.998	0.008**
	201만원 이상	2.453			3.000		
토지소유 여부	소유하고 있음	2.500			2.926		
	소유하지 않음	2.589	0.834	0.405	2.833	0.785	0.433
직업의 관광관련 여부	관련이 없다	2.353			2.824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2.629	2.784	0.064	2.974	1.151	0.318
	관련이 있다	2.560			2.774		

* $p < .05$, ** $p < .01$

(3) 환경적 영향인식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환경적 영향인식은 긍정적인 면은 3.0951점, 부정적인 측면은 3.3075점으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관광개발은 환경훼손과 같은 환경의 부정적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점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본 조사에서도 관광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인식은 다른 영향요인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게 나타나 있다.

집단간 차이는 부정적인 면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조사대상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인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산읍을 본적으로 하는 집단이 환경적 영향인식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관광개발로 인한 고향이 환경적 변화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집단간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연령에 따른 영향인식을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환경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3.458로서 인구통계적인 집단간 분류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 있다. 통계상으로는 20대와 50대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영향 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에서는 나이가 적을수록 관광개발이 환경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른 환경적 영향인식에 대한 차이검정

지역주민의 특성		긍정적 영향인식			부정적 영향인식		
		평균	F/t 값	p 값	평균	F/t 값	p 값
성 별	남 성	3.115	0.715	0.475	3.250	-1.356	0.177
	여 성	3.046			3.417		
연 령	20 대	3.324	2.302	0.078	3.458	0.562	0.640
	30 대	3.029			3.297		
	40 대	3.171			3.296		
	50 대이상	2.942			3.173		
본적지	성 산 읍	3.047	4.228	0.016*	3.284	1.988	0.139
	도내지역	3.528			3.194		
	도외지역	3.125			3.719		
가구 월 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3.061	1.253	0.288	3.245	0.452	0.637
	101~200만원	3.222			3.343		
	201만원 이상	3.047			3.365		
토지소유 여부	소유하고 있음	3.078	-0.406	0.685	3.346	0.844	0.400
	소유하지 않음	3.116			3.244		
직업의 관광관련 여부	관련이 없다	2.941	2.712	0.069	3.346	0.093	0.911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3.142			3.289		
	관련이 있다	3.214			3.298		

* p<.05, ** p<.01

4.4.2 지역관광개발의 영향인식과 지역주민 태도와의 상관성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과 지역주민의 태도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든가 가설에 대해 영향인식과 과거 및 현재의 태도간에 상관관계를 찾아보았다. 상관관계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의 태도와 현재의 태도에서 영향인식과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인식과 태도 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향인식과 태도간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해도 과거의 태도와 현재의 태도간에 관계식은 그 강도가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향인식과 과거태도간에는 $r=0.403$ 인데 비해 현재태도와의 관계는 $r=0.198$ 로 크게 낮아진 것을 살펴볼 수 있다. r 은 상관계수로 그 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낮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환경적 영향인식 및 사회·문화적 영향인식과 태도와의 관계에서는 과거나 현재 모두 관련정

도가 크게 약화는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인 영향인식과 태도와의 관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경제적 영향인식과 태도와의 관련성에서 과거보다 현재 그 관련정도가 크게 약화된 점은 환경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난 것과 비슷하나 경제영향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과거태도와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태도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영향인식과 지역주민의 과거/현재 태도간의 상관관계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	지역주민의 과거태도		지역주민의 현재태도	
	상관계수	p	상관계수	p
긍정적 영향인식	0.403	0.0001**	0.198	0.003**
경제적 영향인식	0.237	0.0001**	0.063	0.343
사회·문화적 영향인식	0.344	0.0001**	0.217	0.001**
환경적 영향인식	0.388	0.0001**	0.198	0.003**
부정적 영향인식	0.102	0.127	0.038	0.567
경제적 영향인식	0.152	0.022*	0.029	0.664
사회·문화적 영향인식	0.061	0.363	-0.062	0.357
환경적 영향인식	0.038	0.565	0.121	0.070

* p<.05, ** p<.01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인식과 태도 즉 과거의 태도와 현재의 태도간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태도가 인구통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찾아보았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태도에서는 연령과 직업이 관광과의 관련여부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태도에서는 이들 집단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지역주민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 과거에는 집단간 태도의 변화가 없었으나 현재에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8>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과거/현재 태도

지역주민의 특성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과거태도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현재태도		
		평균	F/t 값	p 값	평균	F/t 값	p 값
성 별	남 성	3.149	1.202	0.231	3.054	1.330	0.185
	여 성	2.974			2.897		
연 령	20 대	3.611	4.259	0.006**	3.056	0.442	0.723
	30 대	3.017			2.967		
	40 대	3.046			2.955		
	50 대이상	2.769			3.154		
본적지	성 산 읍	3.115	0.463	0.630	3.000	1.332	0.266
	도내지역	3.000			2.778		
	도외지역	2.875			3.250		
가구 월 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3.041	1.462	0.234	3.163	7.290	0.001**
	101~200만원	3.296			3.111		
	201만원 이상	3.000			2.703		
토지소유 여부	소유하고 있음	3.042	0.871	0.385	3.014	0.326	0.745
	소유하지 않음	3.167			2.976		
직업의 관광관련 여부	관련이 없다	2.853	4.116	0.018*	3.000	0.363	0.696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3.276			3.035		
	관련이 있다	2.952			2.905		

* p<.05, ** p<.01

V. 결 론

그 동안 지역관광개발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기술적인 연구가 많았고 이론적인 기반이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지역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태도와 영향인식간의 관계는 어떠한 지에 대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영향인식과 지역주민의 태도에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세계 속의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는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영향인식과 태도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관광개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이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관광개발 영향인식과 지역주민의 태도간에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의 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연구지역인 성산읍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와 지역관광개발의 영향인식간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특성과의 차이분석에서는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라 지역관광개발의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신이나 가족의 직업이 관광과 관련이 있을수록 지역관광개발의 경제적 영향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광과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관광과 관련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간의 갈등은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집단이 지역관광개발의 경제적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지역관광개발의 경제적 혜택은 골고루 배분되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환경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관광과 관련이 없는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관광개발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올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관광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구지역인 성산포지역에는 대규모 관광단지인 성산포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될 지역이다. 이처럼 거대한 관광시설이 들어설 경우 이에 대한 혜택이 관광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관광과 관련이 없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과 경제적 혜택과 같은 긍정적 영향과의 관계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관광을 통한 지역개발은 지역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발전 역시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변화, 사회발전을 통해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

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광개발 역시 개발지역에서의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올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동,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8.
- 김창수, “지역관광개발계획과정의 집단간 갈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4.
- 민창기,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관광교육수용에 관한 실증연구”, 「관광지리학」 제2호, 한국관광지리학회, 1992, pp.135-136.
- 여호근, “관광태도 결정요인이 지속가능한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9, p.14.
- 우상미,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우송대학교 통상관광경영대학원, 2002, pp.15-24. 재정리.
- 이강재, “관광개발의 영향이 지역주민 태도에 미치는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 Carmichael, B. A., "A Matrix Model for Resident Attitudes and behaviors in a Rapidly Changing Tourist Area," *Tourism Management*, Vol.21, 2000, pp.601-611.
- Doxey, G. V., "A Causation Theory of Visitor-Resident Irritants' Methodology and Research Inferences," *Proceedings of the 6th Annual Conference of The Travel Research Association*, San Diego CA: Travel and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1975.
- Godfrey, K. B., "Attitudes towards Sustainable Tourism in the UK : A View from Local government," *Tourism Management*, Vol.19, No.3, 1998, pp.213-224.
- Jafari, J. "A Systematic View of Sociocultural Dimensions of Tourism," *In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Americans Outdoors, Tourism*, Washington D. C., 1986, pp.33-50. pp.3-11.
- Juanita C. Liu and Turgut Var,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Impacts in Hawaii,"

-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13, No.2, 1986, pp.193-214.
- Jurowski, J. U. Muzaffer and D. R. Williams, "A Theoretical Analysis of Host Community Resident Reactions to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36, No.2, 1997,
- Karen Cooke, "Guidelines for Socially Appropriate Tourism Development in British Columbia,"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21, No.1, 1982, pp.22-28.
- Richard R. Perdue, Patrick T. Long and Lawrence R. Allen, "Resident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17, No.4, 1990, p.586.
- Richard, J. L., The Role of Attitude Theory in Marketing in Harold H. Kassarian and T. S. Robertson, eds., *Perspectives in Consumer Behavior*, 3rd ed., (Glenview, Ill : Scott, Foresman, 1981), p.235.
- Robertson, T. C. Jelinski, J. and Ward, *Consumer Behavior*, (Scott : Foresman and Company, 1984), pp.247-248.